

통계 속에 숨어있는 한국출판의 허구

「출판연감」 '91년판을 보며 느낀 몇가지 문제와 개선방안

이중환

출판평론가·서울신문 논설위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남미·아프리카에 관한 역사서 초판본이 한권도 간행되지 않았다. 어학서 분야에서도 이탈리아어, 루마니아어는 역시 한권도 나오지 않았다. 「1991 韓國出版年鑑」을 받아 들고 내가 언제나 제일 먼저 들추어 보는 출판통계면에서 역시 제일 먼저 읽어 본 「도서종별·판형별·발행종수」 통계의 수치이다.

나는 또 습관대로 전년도판과 비교해 보았다. 89년에는 미국에 관한 역사서가 1권은 있었다. 그러나 또 89년에는 오세아니아에 관한 역사서가 한권도 간행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90년에 대단히 많이 나왔다는 것은 아니다. 단 2권이 간행됐을 뿐이다.

이런 통계를 읽게 되면 더욱더 답답해지기 마련이다. 89년과 90년 한해동안 우리가 미국 역사서를 단 1권만 간행해도 좋을만큼 우리는 미국을 잘 알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도 미국과 같이 지낸다는 것인가. 우선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다.

그래도 이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 연감 통계가 조금은 나아졌기 때문이다. 몇년전만 해도 이 통계항목마저 있었던 게 아니다. 그저 종류·철학·종교·사회과학·순수과학·기술과학·예술·어학·문학·역사·학습참고·아동 등 12개 대분류에 초판과 중판의 합계만 있었다. 이제 이 12개 분류마다 10개쯤의 세분항목으로 찾아보게 할 만큼은 변화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역시 1백20개가 못되는 항목으로 세분이 됐으므로 아직도 도대체 1권이 나오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는 분야가 너무 많다.

지난 2년새 그렇게도 요란하게 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환경분야 도서는 아직도 통계상으로는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낼 수가 없다. 생태학이란 항도 없고, 환경학이란 항도 아예 아직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의 통계읽기는 환경오염에 관한 책이 그래도 몇권 나왔는데 이것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를 또 혼자서 더듬어 보는 어려움을 갖는다. 혹시 13종이 나온 지학에 있을까, 아니면 11종이 나온 식물학에는 없을까, 그렇지 않다면 19종이 나온 화학공학에는 어떨까. 이것은 실상 질문조차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출판연감통계에 대해 이제는 이야기를 좀 시작해야 할 것이란 생각을 한다. 어떻게 통계를 만들어야 출판통계가 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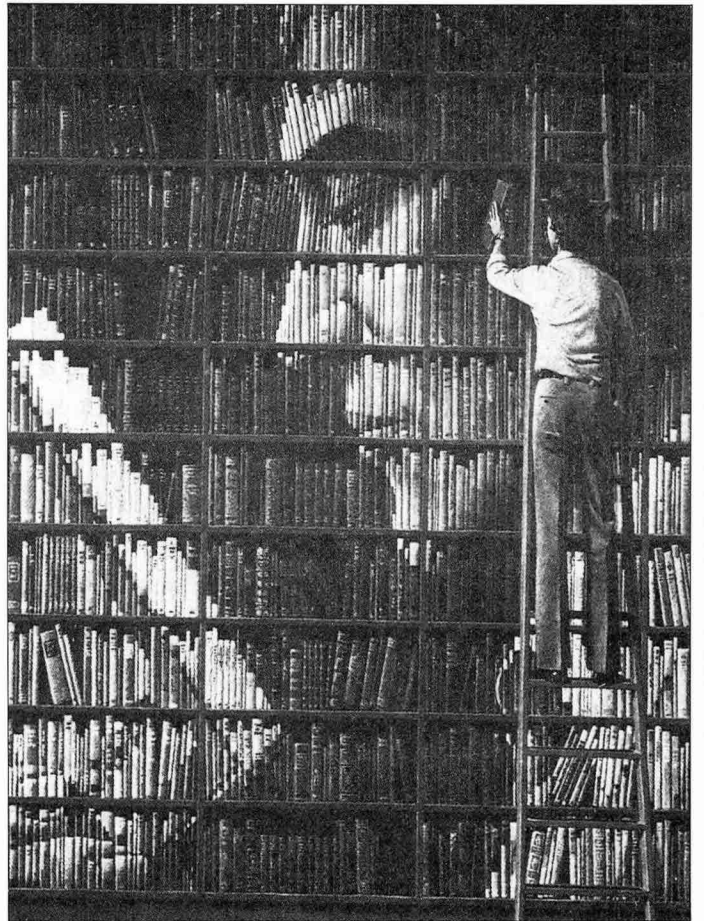
일까.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는 없다. 이는 좀더 진지하게 연구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계적 출판대국」의 출판통계

우선은 지금 가지고 있는 출판통계의 허상들만 언급해 보자. 현재 연감의 통계내용은 19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중 제일 먼저 있는 것이 「일반도서 종별·월별 발행종수」이다. 초판과 중판이 구분되어 있지만 누구나 최종 합계만을 읽게 된다. 그래서 90년도의 초판은 20,903종인데 모두들 중판까지를 포함한 41,712종을 우리 출판종수로 기억하게 마련이다. 중판에 있어서도 연간 여러번 중판된 것들 역시 다 개별적으로 1회 간행으로 포함된다. 그러니 세계적으로 대단한 출판국이 되기도 한다. 세계 7위나 8위에 있는 수치가 된다. 87년 유네스코 통계로 아시아지역의 연간 총 간행점수가 19만점으로 나와 있다. 우리가 이중 20%를 넘는 셈이다. 4만종이나 된다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느낌으로는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실체를 보여주는 계수는 아니다. 왜냐하면 2만종 신간에서도 학습참고서 3,060종과 아동도서 3,414종은 나라에 따라(거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일반도서 종합통계에서는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체가 왜곡되고 있는 것은 두번째 항목에 게재되고 있는 「일반도서 평균부수·가격·면수」라는 통계이다. 90년도 발행부수는 2억4천1백80만부로 나와 있다. 이중 초판은 1억2천60만부이다. 광장해 보인다. 그러나 뒷편에 있는 국민의 연간 도서관구입통계는 국민 1인당 2.9권으로 나와 있다. 단순한 산술의 최대 외형치로 1억3천만부쯤 구입한다는 양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도 1억부 이상은 그저 간행했다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통계는 우선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효용이 없다. 책은 어떻게 말하지 않더라도 간행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소비된 것이 중요한 것이다. 책은 독자의 손에 도착했을 때에야 그 존재가 완성되는 물체이다. 창고에 쌓여서 먼지속에 묻혀 있을 때 그것은 어떤 사상이나 의미도 표현하지 않는다. 그저 잉크가 묻어 있는 파지일 뿐이다.

그러나 이 간행부수 통계로 우리는 자주 출판산업까지를 말하고 있다. 통계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통계의 합계부분만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남분자료 의거한 대분류 총계

이 통계가 지나고 나서 나열되고 있는 항목들은 또 앞의 두 항목의 맹점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들이다. 「최근 10년간」의 「도서발행종수 추이」 「평균발행부수추이」 「평균가격추이」 등이 나타난다.

그리고 나서 「번역도서 종별 발행량」이라는 것과 「문학도서 장르별 발행종수」라는 것이 있다. 이 역시 12개의 대분류로 구분된다. 그리고 문학에서는 또 시·희곡·소설·수필·평론·전집·기타들이 구분된다. 90년에는 89년 대비 시집이 5.2%포인트, 희곡이 4.8, 평론이 35.5, 전집이 45.6%포인트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는 있다. 그러나 실종수로 보아 예컨대 평론의 경우 90종에서 58종으로 줄었다는 것이고 보면 이는 또 줄으나 늘으나 대단한 차이도 없는 것이다. 전집은 좀더 심각하다. 250종

에서 136종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 역시 새로운 質의 전집으로서의 간행이 아니고 반복되는 재탕·삼탕의 전집들이고 보면 오히려 줄어든 것이 전집류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통계들 역시 우리에게 아무 것도 알게 해 주는 것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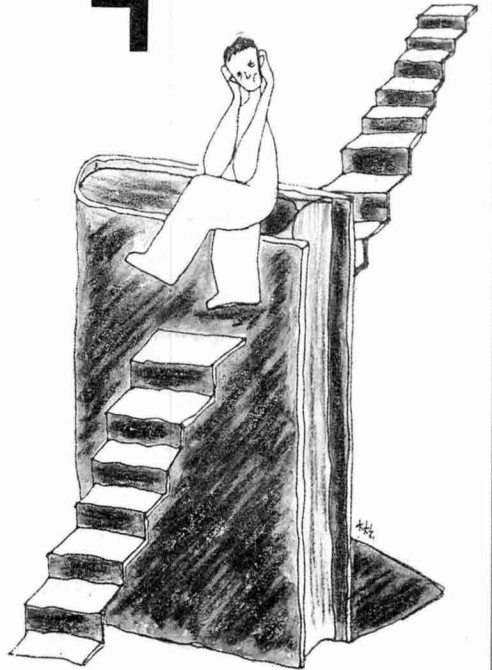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최근 5년간 전국 출판사수 추이」 「90년도 서울 처지방 출판량 비교」 「실적별 출판사수 추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통계는 물론 기능적인 것들이므로 있기는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적별 추이」라는 통계는 이것으로 크게 논의할 것이 없음에도 자주 논의되고 있다는 언급형식의 문제가 있다. 대개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된다. 90년 통계로 5,684개의 출판사가 있는데 1권도 내지 않은 무실적 출판사가 3,299개로 58.1%에 달한다-이것은 출판계의 부실함을 뜻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실은 어느나라에서도 활발히 간행을 하는 출판사는 전체의 7% 내외이다. 그리고

다·자·인·전·문·집·단

미필적 고의

美筆的 高意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어딘가 꼬집을 수 없는 고민
이건 아닌데.....
실제로 쳐다보기도 하고
거꾸로 뒤집어서 보기도 하고.....
그래도 이건 아닌데 하고
고개를 가우똥거리게 되는
표지에의 고민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가 탄생했습니다.
디자인에 관한
숙련된 전문가의 솜씨로
높은 뜻을 이루어내겠습니다.

- ▶미필적 고의는 그동안 <바른글방> 안에서 표지·일러스트 등의 책 꾸미기를 주로 하던 디자인 팀의 새 이름입니다.
- ▶미필적 고의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표지·본문 등의 디자인
 - 출판광고 디자인
 - 일러스트
 - 출판제작 대행

출·판·전·문·집·단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7-9
한샘빌딩 3층
전화 325-5366 (대)
325-5363~5
325-6484~5
팩스 325-5362

다·자·인·전·문·집·단



어느 나라든 무실적 출판사는 있게 마련이다. 실제적으로 어느 한 개인이 출판사를 등록하고 3년이나 5년쯤 정성들여 한편의 책을 만들었다 했을 때, 그 업적은 찬연한 것이 될 수 있을지라도 3년간은 무실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곧 출판의 기초적 형태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통계들은 그다지 유심히 볼 통계들은 아니다. 그저 인체의 맹장과 같은 통계들이다. 없으면 안되지만 있어도 있다는 것으로만 충분한 항목이다.

이 뒤로는 타분야의 자료를 옮긴 통계들이 들어 있다. 정기간행물현황, 도서관 현황이 간략히 있고 서적구입량, 서적보유가구비율, 독서인구비율, 여가활용방법들의 통계는 경제기획원의 「사회지표조사」의 자료들이다.

결국 출판통계란 외형적으로 납본자료에 의한 초보적 대분류 총계의 항목 밖에 없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출판통계의 의미와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아직은 분명치 않은 셈이다.

통계에 대한 관점의 혁신 필요

통계에 대한 관점의 혁신이 이제는 좀 시도돼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통계는 결과의 집계만을 뜻해서는 안된다. 특히 문화통계에 있어서는 그렇다. 문화영역의 통계는 문화영역의 나아가야 할 바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통계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평가의 실질적 척도가 돼야 한다. 더 나아가 통계로서 직접 문화지표가 될 수도 있어야 통계의 효용이 성립된다. 이 점에서 우리 통계들은 더욱더 빈약하다.

우선적으로 총량통계에서 학습참고서와 아동서를 독립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초판과 중판본도 따로 정리하는 것이 분명한 자료가 된다. 총량 4만종대가 갑자기 2만종으로 준다고 해서 창피할 것은 하나도 없다. 2만종대에 있어도 실은 세계적 비교에서 10위권 대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2만종 규모에서도 대학교재들은 더 분별해 내는 것이 옳을지 모른다. '스튜던트 에디션'이 우리에게서는 구분돼 있지 않는데 이 역시 관행상 일반도서는 아니다.

발행부수 통계는 불필요해 보인다. 이 통계는 더욱 실 발행부수의 집계도 아니다. 어느 출판사든 잘 팔린 책은 잘 팔린대로, 안 팔린 책은 안 팔린대로 부수를 말하고 싶지 않은게 출판사의 심정이다. 그러므로 실 판매부수의

집계를 하든가 그만두든가 하는 것이 바른 통계이다.

나의 관심은 이러한 기초적 접근에만 있지 않다. 문화양상을 보다 잘 읽게 해 줄 수 있는 통계 항목들이 설정돼야 한다. 예컨대 유네스코 도서통계에는 주요저작자별 번역현황이란 통계가 지속된다. 미국의 과학에세이스트 아이작 아시모프는 1961년부터 70년까지 237종, 그후 84년까지 384종으로 12개국에서 번역됐다. 지난해 우리도 2종 번역했다. 이런 경우 이 통계들의 비교까지도 해 보는 항목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레닌은 그동안 3천6백60종이 14개국에서 번역된 것으로 확인돼 있다. 이속에 우리의 번역은 들어가 있는지 확실치 않다. 그리고 아마도 이 종수는 앞으로 전 세계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런 항목에 우리 자료도 넣어주고 또 전체자료에서 우리 자신을 비교할 수 있는 구조를 통계에서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 수치 한줄로 수필과 시집 종수를 표기하고 있는 통계는 더욱 허술해 보일 뿐이다.

오늘날 우리 출판의 능력은 이 외형적 단순 통계에 의해 너무 과대 평가돼 있다. 성장하고 있다는 모양을 만드는 일은 좋을지 모른다. 그러나 마이너스 성장을 더 잘 말하는 것이 오히려 출판에겐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책을 안 읽는다고 말하면서도 책은 충분히 간행되고 있지 않으나, 책으로 돈도 벌지 않느냐라는 이미지 속에 있는 것처럼 손해나는 일은 없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서 어떻게 어느 부면에서 문화적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인가를 전달할 수 있는 통계항목의 개선을 간곡히 제언한다. 이것이 출판통계의 허와 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